

“카트 끌고 약 쇼핑”… 광주 첫 창고형 약국 ‘문전성시’

광산구 수완동 개점…일반·동물의약품 등 2600종 판매
영양제 등 ‘불티’…약사 상주해도 오남용 우려 목소리

“동종의 약을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고, 가격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네요.”

광주지역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을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건물.

이곳에는 지난 4일 지역 최초로 문을 연 ‘창고형 약국’이 위치해 있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지났음에도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해당 약국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실 틈 없이 이어지는 방문객들로 건물 2~3층에 마련된 주차장은 금세 차버렸고, 주변에 위치한 도로는 방문 차량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정체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매장 출입구 앞에는 다양한 의약품들을 담을 수 있는 쇼핑카트와 장바구니가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528.9㎡ 규모의 약국 내부는 일반의약품부터 동물의약품이 11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열돼 있었다.

진열대에는 감기약이나 소화제부터 건강기능식품, 반창고와 같은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2600종 이상의 수많은 상품들이 마련돼 있었다. 의약품 매대는 일반 마트처럼 가격표가 부착된 상태였다.

연인, 가족 등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은 진열대에 마련된 의약품들을 둘러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지인에게 전화를 하며 의약품 구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휴대전화로 가격을 알아보는 등 ‘일반 쇼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장 한쪽에서는 약사가 방문객들의 문의에 답해주거나 상품이 진열된 매대를 안내했다.

일부 시민들은 약사에게 “혹시 이 약이



지난 11일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 광산구 수완동 ‘창고형 약국’을 찾은 시민들이 진열대에 마련된 의약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있는지”, “언제 또 들어오는가”, “이 약도 진열해주면 안 되나” 등을 묻기도 했다.

계산대에도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같이 해주고 있었다.

이들은 비슷한 효능의 약품을 구매하거나 상품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계산 전 상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많은 상품들을 직접 비교해 구

매할 수 있다는 점, 효능 및 성분 등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50대 정지훈씨는 “창고형 약국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찾았다”며 “비타민이나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 의약품은 인터넷보다 믿을 수 있고 시중

약국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비교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인근 약국 약사는 “약사들이 상주하며 복약지도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오남용, 부작용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며 “약사의 전문성이 배제되기 쉽고, 의약품들 고르다 보면 증상에 맞지 않는 약을 사

나, 필요 이상으로 약을 쌓아두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현재까지 개설이 허가된 전국 창고형 약국은 경기 성남 메가백토리아약국, 경기 고양 메디타온약국, 전북 전주 메디테리아약국, 광주 광산 메가스토어약국 등 4곳이다.

윤웅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암호화폐’ 투자 리딩 사기 일당 무더기 중형
피해자 80명…범죄 수익금 18억5000만원

암호화폐 투자 리딩 (매매 종목 추천·조언) 사기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35)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 (41)에게 징역 5년을,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5년·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1393만3200원의 추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호화폐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를 벌여 피해자 80명으로부터 1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할 허부채, 영업수수료 정산책,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책, 각종 유튜브 영상 제작, 팀원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또 영업 조직까지 차려 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과 이륜차 같은 코인 투자를 조직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투자 유튜브 동영상상을 시칭한 피해자들이 무료 코인을 받거나, 남긴 연락처로 투자 권유 전화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양산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 사이트도 운영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투자를 유도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일부 조직원은 채팅방에서 ‘수십억대 수익을 얻는다’는 거짓말로 추가 투자를 꾀어냈다. 또 ‘코인 2종류가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린 뒤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러한 조직적인 범행에 피해자 9명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억 4526만원을 잃었다. 32명은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7억576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보훈병원 전공의 충원율 43%…진료 차질

내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3개 진료과만 배치

광주보훈병원의 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충원율이 43%에 그치면서 일부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광주보훈병원 전공의는 9명으로, 하반기 모집 정원 21명 대비 충원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원된 전공의는 인턴 2명, 레지던트 7명이다.

그러나 광주보훈병원에 전공의가 배치된 곳은 내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모집에 85명이 충원(충원율 94%)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부 진료과 현황을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했다.

서울중앙보훈병원은 내과·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15개 진료과 중 13개 과에 전공의가 배치됐다.

그러나 광주보훈병원에 전공의가 배치된 곳은 내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3개 과에 불과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12개 과는 전무했다.

이에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 (부산 진구을)은 “정부가 전공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방 보훈병원에는 의사가 오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훈 책임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부는 지방 보훈병원의 의료 공백을 즉각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산하 기자

자녀 운동부 감독 협박한 학부모들 벌금형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 감독을 몰러나게 하려고 협박을 일삼은 학부모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용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 (57)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감독 B씨에게 전화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사퇴를 종용하

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자녀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녀의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영진 기자 looks@

여성 행세로 수천만원 끌개

만년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3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8~9월 한 온라인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2683만원을 받아 갹진 혐의.

A씨는 해당 데이트 앱에서 2명의 여성(C씨·D씨)으로 가장해 활동하며 B씨를 속였다고.

A씨는 C씨의 성관계 영상을 구매하면 사귀 수 있게 해주겠다고 B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던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행세로 피해를 속여 배반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동행 지역상공인

광남일보 사비 후원문화체육관광부

유럽이 담긴 테라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다

더왈츠

Coffee, Wine & Music

blog m.blog.naver.com/kbincent instagram.com/mokpo_the_waltz

☎ 061-284-2377

☉ 화요일 - 일요일 (A.M 10:00 ~ P.M 10:00) 월요일 휴무

☐ 전남 목포시 하당로 36 (목포시 교육청에서 도보로 1~2분거리)

입양사와 마주하 힐링 카페

2층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세계 음악 여행

음악과 함께 새로운 추억이 되는 감성명소

2층 스튜디오 내부

2층 스튜디오 내부

음악 감상하기, 마시는 등의 감성 여행